

선력 63 / 제주 지방선거 브리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당·이름 가나다 순>

문대림 “제주 반려동물 단체보험 가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제주 반려동물 단체보험 가입’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상책임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인 ‘제주형 기본안심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하거나 내장형 칩으로 등록을 완료한 도민에게 펫보험 가입을 1년간 무상 지원하고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제주형 펫위탁소’와 ‘반려동물 보건소’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지자체 주도 단체보험은 시중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보장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개인이 가입하기 부담스러웠던 펫보험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양육자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위성곤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풍력 발전 전기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판매하는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도를 바꾸고 도민이 결실을 누리는 ‘에너지 주권 시대’를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연간 4조2000억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최소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제주도와 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K-반도체의 성공을 우리 제주의 바탕으로 이끌고 그 풍요로운 결실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김명호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일자리 확대”

김명호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제주형 통합돌봄 2.0 계획을 발표했다.

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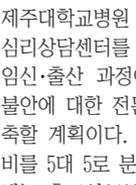
순한 복지가 아닌 일자리 정책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 도민 공동체를 지키는 정책”이라며 “돌봄부지사 도입, 사회서비스원 중심 공공돌봄 체계 구축,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 세 가지 축으로 통합돌봄 2.0정책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제주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제주지역 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내 전문 심리상담 기관이 부족해 일부 도민들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 시간·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제주대학교병원 내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난임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전문 상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는 국비와 도비를 5대 5로 분담해 운영되며, 올해는 총 1억2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7월 추가 경쟁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 뒤 이르면 7월 중 센터를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채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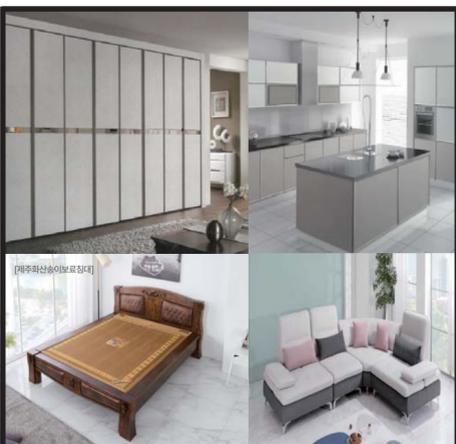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우주산업 원스톱 공급망 구축 ‘본궤도’

내달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컨택 지상국 개소 위성 제조부터 데이터 활용 잇는 산업 구축 속도

제주도가 위성 제조부터 발사, 관제, 데이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우주산업 원스톱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며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민간 지상국 단지인 컨택(CONTEC)의 ‘아시아 스페이스 파크(ASP)’가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상국 가동을 계기로 제주형 우주산업 가치사슬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 데 이어, 큐브위성 ‘퍼셋(PERSAT)’ 개발에 참여한 쿼터니언도 연내 도내 지사와 공장 설립을 확정했다. 특히 우주기업 직접 거점으로 조성 중인 하원테크노 캠퍼스는 기획발전특구 및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산업 성장의 성과는 지역 일자리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도내 우주산업 관련 기업·기관 종사자 196명 중 134명이 제주지역 인력으로, 현지 채용률은 68.4%에 달한다. 이 가운데 67.9%는 연구·사무직과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으로 집계됐다.

ASP는 1만7546㎡ 부지에 약 2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다. 현재 컨택 자체 안테나와 글로벌 파트너사 안테나 등 12기의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가 집결돼 있으며, 전 세계 우주기업 간 데이터

교환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이끄는 ‘아시아 스페이스 허브’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향후 SI 기반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구축해 단순 위성 데이터 수신에 넘어 분석과 전처리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우주 데이터 올인원 허브’로의 기능으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제주는 2023년 국내 최초 민간 위성 해상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우주산업 기반을 다져왔다. 여기에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유치에 이어 이번 컨택 지상국까지 가동되면 위성 제조→해상 발사→지상국 관제→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은 우주기업들의 ‘제주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주방산 기업 케이알에스(KRS)가 지난해 말 본사를 제주로 이전

한데 이어, 큐브위성 ‘퍼셋(PERSAT)’ 개발에 참여한 쿼터니언도 연내 도내 지사와 공장 설립을 확정했다. 특히 우주기업 직접 거점으로 조성 중인 하원테크노 캠퍼스는 기획발전특구 및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산업 성장의 성과는 지역 일자리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도내 우주산업 관련 기업·기관 종사자 196명 중 134명이 제주지역 인력으로, 현지 채용률은 68.4%에 달한다. 이 가운데 67.9%는 연구·사무직과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으로 집계됐다.



분별 아래 분주한 손길 23일 제주시 조촌읍 신촌리 한 농가에서 농민들이 따스한 봄볕을 맞으며 모종 파종작업을 하고 있다. 김희만기자

서귀포시, 오름 탐방로 정비 오름 16곳 매트 등 교체·보강

서귀포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태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 23억원을 투입해 오름 1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오는 4월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보행매트 교체 및 훼손된 구간 정비, 기존 고무매트 철거 및 친환경 소재 적용, 안전웬스 신규 설치, 로프 난간 보수 및 보강, 노후 안내판 교체 및 정비 등 노후화된 탐방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백근탁기자 haru@ihalla.com

Advertisement for Dain Kulguri (다인굴고리) featuring images of the produc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agricultural work, such as being easy to adjust and durable.